

'시범운영' 남원아트센터 인기몰이

3개월만에 2500여명 찾아
올 들어서도 시민들 대관
프로그램 참여 문의 줄이어



옛 KBS 남원방송국에 자리 잡은 남원아트센터가 시민문화공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옛 KBS 남원방송국에 자리 잡은 남원아트센터가 시민문화공간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일부 시설을 개방해 사전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남원아트센터는 개원 3개월 만에 시민 2,5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올 들어서도 시민들의 대관과 프로그램 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건물내부 석면 제거하고 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만 보수해 임시 개방한 상태인데도 하루 대관인원이 많을 때는 150명에 이르고 있다. 입소문을 타면서 남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익산·장수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원아트센터에서는 현재 기악, 관소

리, 무용 등의 창작 활동을 위한 연습실 대관과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리포퍼와 목공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을공동체 및 문화예술분야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램마다 수강신청이 조기에 마감돼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옛 방송국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는 팟캐스트 제작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사운드 스튜디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임상옥 문화도시 아트센터 팀장은 "남원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욕구에 비해 문화유류 공간이 의외로 부족한 실정이다"며 "아트센터가 그 부족한 공간을 메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열린 문

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다양한 파인릿 프로그램 운영, 시민 및 유관기관 공청회,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트센터를 문화도시 남원을 대표하는 시민창의 문화예술거점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예비 장인들의 짜맞춤 작품 한눈에

전당, 전통기술 전수교육 연계 전시회 진행 중
목재·대패·끝·그루개 등 전통 도구 이용
권원덕 '짜맞춤 사방탁자 전개도' 시선 집중

전통의 맥을 잇는 예비 장인들의 짜맞춤 전시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이 지난해 6월부터 전통문화창조센터 시제품제작소를 통해 '짜맞춤 전통기술 전수교육'을 진행한 가운데, 짜맞춤 고급반과 장업반 교육생 20여 명이 작품을 펼쳐 왔다.

전시작품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목재와 대패, 끌, 그루개 등 전통의 도구를 이용해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한 가구들로 구성된다. 사방탁자에는 우리나라 전통가구에서 잘 나타나는 제비족과 연귀장부, 삼방 연귀, 주막장 등 전통 방식의 다양한 결구법이 활용돼 목공예 등 문화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회에는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 고 조석진 명인이 생전 제작한 사방탁자를 제자인 권원덕 작가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투명 아크릴로 제작한 '짜맞춤 사방탁자 전개도'도 함께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가 치러지기까지는 고 조석진 선생으로부터 전통 짜맞춤에 대해 전수 받은 권원덕 작가의 힘이 컸다. 문화재청 산하 비영리단체인 '예울'로부터 '2017 젊은 공예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권 작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가졌다. 권 작가는 목재 선택에서부터 솥돌 평잡기, 대패날, 끌갈기, 대패질, 톱질, 끌질은 물론 제비족 장부맞춤, 연귀장부맞춤, 주막장, 삼방연귀, 오일칠 등에 대한 수준별 교육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침압반 교육생들에게는 각골기, 루터, 테이블소, 스키시 등 목가공 기계교육도 진행했다. 오태수 원장은 "전통 장인의 도제식 교육을 통해 유·무형의 기술을 전수받은 예비 장인들이 지난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려왔다"며 "전통의 맥을 이으려는 예비 장인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국립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 관광드레와 협약 체결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과 익산시 관광드레가 시민맞춤형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기반으로 익산의 역사·문화·관광콘텐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내용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사·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병호 관장은 "익산시관광드레와 2017년부터 상호 협력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함으로써 그 동안의 제한적인 전시관 내의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맞춤형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익산문화재단을 주요업무계획 지역 고유문화 정비... 초점은 '사람'

(재)익산문화재단은 올해 특색 있는 익산만의 고유문화를 정비하고 사람에 중점을 둔 지역문화예술 정책을 펼친다. 재단은 2018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람과 문화를 잇는 문화교역 역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익산 문화예술 홍보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문화예술대제전 등이 익산에서 치러짐에 따라 이러한 굵직한 지역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의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전국체전 등 치러짐에 따라 문화예술 기틀 다지기 돌입
신규사업으로 익산학 연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 추진

재단은 또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정책수립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익산학 연구'와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의 고유 자산을 발견하는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의 경우 '지역 스토리텔링 발간'과 '익산문화포럼 공간', '시민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과의 문화예술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익산아트센터를 거점으로 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국가 공모사업으로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과 오케스트라의 가치를 통해 지역화합을 실현시키는 꿈의 오케스트라 익산이 진행된다. 오는 5월에는 역사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2018익산서동축제'도 개최할 예

정이다. 미륵사지석탑 복원 완료와 맞물려 진행될 행사는 역사성이 한층 강화된 역사문화축제로 치러지는 구상이다. 서동요를 모티브로 한 '익산서동축제 창작로고송 공모전'과 백제시대 무왕의 행차를 재현하는 '무왕제례' 등 서동축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로 꾸려진다. 재단 관계자는 "내년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지역문화향유의 주인공인 시민이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원장직무대리 전종운)의 대표작품 '춘향실록-춘향은 죽었다'가 경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으로 오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른다. 창극 '춘향실록-춘향은 죽었다'는 우리나라 대표 리브스트리인 '춘향전'의 춘향과 몽룡이 실제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물음에서 기획됐다. 작품은 1992년 KBS역사스페셜 '이몽룡

국립민속국악원 '춘향실록-춘향은 죽었다' 내달 8~9일
은 실존인물이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두된 '성이성'을 통해 알게 된 춘향의 실제 모습과 관소리 춘향가의 이야기 구조를 더해 새롭게 구성했다. 극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춘향과 몽룡의 사랑을 비극적으로 그려낸다. 눈 내리는 광한루를 배경으로 '성이성'과 '늙은 사내'가 만나 그때의 일을 회상

관련한 공연물을 다수 구성·연출해 오며 가졌던 고민이 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면서 작품은 "소신을 지키며 무변의 사랑으로 남은 '춘향'이란 인물을 이 시대의 소리꾼들이 재조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권은 전석 만원이며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 및 인터파크(ticket.interpark.com)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재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